

『커뮤니티 아카이브 만들기 : 센다이미디어테크  
‘3월 11일을 잊지 않기 위하여’ 센터 분투기』

사토 토모히사, 카이켄지, 기타노 히사시 지음, 윤주 옮김,  
빨간집출판사, 2021

윤은하(Youn, Eunha)\*

지난 10년간 국내외 학계에서 커뮤니티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가 급증했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책들이 소개되었다. 이제껏 출판된 대부분 책들이 사례연구와 이론서를 중심으로 한 학술서였는데, 이에 반해 본 저서 『커뮤니티 아카이브 만들기』는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현장의 고민을 중심으로 실천적 이슈들을 무겁지만 무겁지 않게 다루고 있다.

본 저서의 저자는 일본 문화인류학자인 사토 토모히사와 센다이미디어테크의 카이켄지와 기타노 히사시 등 3인이다. 책의 서문에서 언급했듯이, 이 세 사람의 저자는 모두 전문 아키비스트나 기록인들은 아니다. 문화인류학 연구자로, 또 센다이미디어테크 디지털 플랫폼 운영 아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보통시민이다. 동일본 지진에서 발견한 새로운 사실과 관점을 체험을 아카이빙 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가치와 방법론을 발견하였다.

저자들은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2011년 5월3일) 재해 기록화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커뮤니티 아카이브로 명명하고 있다.

---

\* 전북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부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연구원(eunha.youn@gmail.com).

이 과정에서 마주친 여러 이슈들과 시도들을 정리하고 이야기로 쉽게 풀어내고 있는데, 가장 미시적인 단계에서부터 커뮤니티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방법론적 논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군더더기 없이, 그리고 난해한 이론적 수사여구 없이 저자들은 커뮤니티 아카이브에서 이슈가 되는 이론적, 방법론적 사항들을 담고 있다.

저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센다이미디어테크는 일본 센다이시 도심에 있는 복합 교육예술공간이다. 센다이 도서관과 갤러리, 이벤트 공간과 극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아카이브 활동에서 중심이 되었던 장소는 7층에 위치한 활동 플랫폼으로서 스튜디오이다. 이곳에서 모인 사람들은 동일본 대지진의 기록을 만들고, 편집하고, 보여주고, 서로 나눈다. 저자들에 따르면, 스튜디오는 재난 지역을 미디어로 촬영하거나 구술작업 등의 기록화 작업으로 통해 획득한 기록들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재생산해내는 장소로, 센다이미디어테크의 철학과 아카이브의 철학이 서로 접점을 찾으며 공존하는 공간이다.

이 책의 처음 집필 의도는, 커뮤니티 아카이브 매뉴얼북을 출판하려 했다는 것이 저자들의 설명이다. 그만큼 실용적이고 현장중심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커뮤니티 아카이브 만드는 법’, ‘기록의 당사자성 획득하기’, ‘아카이빙 커뮤니티 만들기’, ‘와스렌! 다운 기록의 특징’, ‘아카이브는 누구의 것인가’ 등 책의 목차와 내용을 얼핏 훑어보기만 해도, 공동체 아카이브를 연구하는 연구자 뿐 아니라 아카이브 활동가라면 관심을 가질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커뮤니티 아카이브 만드는 법의 장에서는 아카이브 플랫폼 디자인하기, 예산·구조·근거·공감으로 구체화하기, 명칭과 로고, 공간 설계 설정하기 등의 이슈를 다룬다. 그리고는 커뮤니티 아카이브 참여자들에게 ‘기록대상을 지시하지 말 것’, ‘시민과 표현자에서 기록자로’, ‘아카이브는 서서히 자란다’는 등의 이라는 커뮤니티 아키비스트의 기본 태도와 지침을 부여하기도 한다.

저자들은 커뮤니티 아카이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이해한다. 커뮤니티 아카이브는, 첫째 수집된 기록물이 커뮤니티에 관한 아카이브, 둘째는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어 나갈 때 만들어지는 아카이브로 구분된다. 이 흥미로운 구분은, 아마도 동일본 대지진의 재난을 당한 사람들과 이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두 개의 커뮤니티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와스렌!으로 명명되는 이들 기록자들은 지진 재해를 직접적으로 겪은 당사자가 아니다. 또 그들은 전문 아키비스트도, 기록 연구자도 아니다. 제3자의 입장과 눈을 고수하고 있는 시민들이다. 지진을 다양한 국면에서 경험한 시민들이 자신들의 미디어를 사용해서 지진을 기록하고 이를 동시대 사람들을 향해 발신하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보통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하나의 아카이빙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커뮤니티 아카이브 구성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들이 모여 이들이 모여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지, 제작된 영상 기록물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등 커뮤니티의 고민이 실제적으로 담겨 있다. 자 스스로 커뮤니티 아카이브는 기록의 아마추어들의 장(場)이라는 점을 천명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고민들을 아마추어의 경험과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아카이브에 대한 기술적 접근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전혀 기술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동일본 재해라는 비극적 사건 속에서 아카이브라는 답을 찾아 가는 아마추어의 아키비스트의 생각과 방법이 궁극하다면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